

‘김도영 30-30 기대감’ 챔피언스필드 폭염 잊었다

홍련 도루

KIA-KT전 1만4000여명 몰려
홍련 치면 최연소·최소경기 기록
KBO 9호 주인공... 구단 세 번째
서울·대구·순천 등 전국서 운집
“대기록 직접 눈에 담고 싶어요”

“도영아 니맘시 살아야.”
‘야구 천재’ 김도영의 대기록 달성이 임박한 가운데 KIA타이거즈 팬들의 마음도 들썩이고 있다. 지난 3일까지 올 시즌 103경기에서 29홈런, 30도루를 생산하면서 30홈런-30도루를 목전에 뒀고, 평일임에도 구름 관중이 몰려들며 대기록을 향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김도영은 지난 3일 대전 한화생명이글스파크에서 열린 한화이글스와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3차전 2-3으로 뒤진 5회초 1사 2루에서 라이언 와이스의 5구째 149km 직구를 공략해 우월홈런으로 연결했다.

이 홈런으로 김도영은 올 시즌 29홈런째를 채웠다. 이미 지난달 31일 광주 두산전에서 30도루를 채운 상황에서 홈런 한 개만 추가한다면 30홈런-30도루의 대기록을 달성하게 된다.

KBO 리그 역사상 30홈런-30도루는 여덟 차례밖에 나오지 않았다. 1996년 박재홍(현대)을 시작으로 1997년 이종범



KIA 타이거즈 팬들이 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 타이거즈와 KT위즈의 2024 신한 SOL뱅크 KBO 리그 시즌 13차전에서 김도영 선수의 ‘30홈런-30도루’ 기록 달성을 보기 위해 관람석으로 향하고 있다.

(해태), 1998년 박재홍(현대), 1999년 홍현우(해태)와 이병규(LG), 제이 데이비스(한화), 2000년 박재홍(현대), 2015년 에릭 테임즈(NC)가 그 주인공이다.

만약 김도영이 30홈런-30도루의 주인공

이 된다면 역대 일곱 명, 아홉 번째가 된다. 특히 타이거즈 역사로 범위를 좁히면 25년 만에 세 번째로 탄생하는 대기록의 주인공이다.

또 김도영은 최연소와 최소 경기 30홈런-30도루의 주인공에도 함께 등극할 전

망이다. 최연소 기록은 박재홍의 22세 11개월 27일로 현재 20세인 김도영은 2년 이상 앞당길 수 있다. 최소 경기 기록은 테임즈의 112경기(팀 114경기)로 김도영은 현재 103경기(팀 105경기)에 출장 중이다.

김도영이 대기록 달성을 눈앞에 두면서 팬들도 들썩이고 있다. 대기록 달성이 유력한 6일 광주-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리는 KT위즈와 홈경기는 평일임에도 1만4000여석(오후 5시30분 기준)의 티켓이 판매되며 뜨거운 열기를 보였다.

실제로 광주와 순천, 광양, 목포 등 광주·전남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과 대구, 인천 등 전국 각지에서 김도영의 대기록 달성 순간을 직접 보기 위한 팬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서울에서 광주를 찾은 김진영씨는 “김도영의 대기록을 직접 보고 싶었다”며 “목요일까지 회사에 연차를 내고 3연전을 모두 예매했다. KT와 3연전에서 꼭 멋진 홈런을 날려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광주를 방문한 손준형씨 역시 “30홈런, 30도루는 쉽게 볼 수 있는 기록이 아닌 만큼 꼭 그 순간에 함께 해야 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며 “김도영이 KIA를 넘어 한국 야구의 전설로 남는 날까지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순천에서 광주로 올라온 이다빈씨는 “김도영의 30홈런, 30도루 기념품을 제 손으로 잡고 싶어 외야 티켓을 구했다”며 “홈런 공을 꼭 잡아서 순천으로 돌아가겠다. 오늘 홈런이 나오지 않으면 내일 또 올라오겠지만 이왕이면 오늘 기록을 만들어 달라”고 기원했다.

한규빈 기자 gyubin.han@jnilbo.com

“내년 상반기 군공항 예비후보지 선정에 최선”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6일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군 공항 예비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지방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달 29일 열린 3차 회동과 관련해 “첫 만남에 의미가 있었다”며 “추석 전에 한번 더 만나

는 자리를 만들어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남도는 앞으로 무안국제공항 활성화와 무안 지역 발전을 연계하는 방안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인공지능(AI) 첨단농산업 융복합지구 등을 통한 미래 생명산업 육성과 호텔, 카지노, 컨벤션센터를 포

함하는 ‘무안공항 관광 및 국제물류특구’ 등 미래형 신도시 개발까지 내다보며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발언했다.

특히 “2025년 상반기까지 군 공항 예비이전후보지를 선정하고, 그 즉시 광주 국내선을 무안국제공항으로 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안이 예비이전후보지로 선정

김 지사 “추석전 회동 추진, 합의 도출”
전남의대 공청회 통해 도민 의견 수렴

될 경우, 광주시도 무안군이 민간공항만 가져갈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지 않겠느냐”며 “이를 위해서는 광주시 또한 확실하고 전향적인 지원사업 통합 패키지를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 국립의과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는 “이번 공모는 일반적인 공모방식과 다르

게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대 공약수를 만들기 위해 설립방식선정위원회를 두고 공청회 등을 하고 있다”며 “7일부터 9일까지 동부권, 서부권, 중부권에서 추진하는 공청회에 도민, 전문가, 대학 등이 적극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자치도 설치와 관련해선 “연내 특별법 제정을 통해 특별자치도 지위를 획득한 뒤 내년에 강원·전북 사례와 같이 특례 권한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상·하수도 비굴착

• 국내 최초 상·하수도 공용 전체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508호 T.S.L공법』

• 하수도 부분보수공법
『환경부신기술 제426호 O.P.L공법』

굴착교체의 문제점

하수관 보수 공사시 일반적으로 굴착 후
신관교체를 위주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소음이나 교통체증 등 문제가 발생하며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



비굴착 보수공법의 특징

• 굴착을 수반하는
하수관 보수공사에
비해 공사비 저렴
• 투입인원! 인건비 절감

• 하수관 내에 형성된
현장 경화관의 수명을
향후 50년으로 전망

• 단순한 시공 공정으로
안전사고 감소
• 타매설관과 접촉으로
인한 위험성 해소

“인간과 환경이 공존하는 글로벌기업 (유)탐환경건설·(주)탐앤제이”

환경을 생각하고 미래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글로벌 리더로 거듭나겠습니다.